

광주시 “택시 외 도시가스 등 6개 공공요금 동결”



종목	택시	시내버스	도시철도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	쓰레기봉투
현재 요금	3300원 (중형 기본료)	1250원 (일반·교통카드)	1250원 (일반·교통카드)	1155.1원(1J) (가정용 21㎡)	600원 (가정용 21㎡)	580원 (가정용 21㎡)	740원(20ℓ)
인상 시기	2019	2016	2016	2017	2017	2021	

광주시가 공공요금 6개는 인상하지 않지만, 택시 기본요금은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을 검토하고 있어 택시업계의 경영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9일 광주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앞 택시승강장에서 손님들이 택시에 탑승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시내버스·도시철도·쓰레기봉투 전국 들쭉 속 시민부담 경감 차원 택시 기본료 20~30% 인상 검토 대중교통 적자 재정부담은 가장

최근 ‘난방비 폭탄’ 등 전국 지자체별 공공요금 인상 움직임이 이는 가운데 광주시가 택시요금을 제외한 6개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시민부담 경감 차원의 결정이지만,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의 경우 원가 상승과 승객 감소로 시의 재정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택시요금을 제외한 6개의 공공요금을 동결했다. 동결되는 공공요금은 △시내버스 △도시철도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 △쓰레기봉투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가정용 상·하수도 요금이 21㎡당 각각 600원, 580원,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은 1J(줄)당 1155.1원, 시내버스와 도시철도요금은 일반 기준 1250원, 쓰레기봉투값은 20ℓ당 740원이 유지된다.

다만 공공요금 중 하나인 택시요금은 인상이 불가피하다. 광주시는 물가 인상분과 택시업계 운영난 등을 고려해 택시 기본요금은 20~30% 가량 인상을 검토 중이다.

요금인상은 용역결과에 따라 기본요금 3300원에서 3800원, 4000원, 4300원 등 3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광주시는 대구와 울산이 지난 1월 택시 기본요금을 1000원 가량 인상한 점을 고려해 4000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국 7개 광역시 중 기본요금이 가장 낮았던 택시요금은 인상 후에도 최저수준이라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심야 할증 시간도 자정에서 1시간을 앞당기는 부분도 논의 중에 있다. 시는 지난 2019년 1월 택시요금을 인상한 바 있다.

광주시가 공공요금 6개 동결 방침에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덜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서민의 발’로 통하는 광주 시내버스의 경우 장기간 요금동결로 인해 재정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광주시내버스는 지난

2016년 인상이후 8년째 요금이 동결됐다. 시내버스는 승객 감소와 운송원가 인상, 코로나19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매년 적자규모만 1000억원이 넘는다. 덩달아 광주시의 버스회사 재정지원액도 2018년 630억원에서 지난해 1393억원까지 2배 가량 늘어났다. 광주지하철 상황도 마찬가지다. 2016년 1250원으로 인상된 지하철요금은 누적적자만 6209억원(2022년 기준)에 달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공요금 동결이 근본적인 물가안정 대책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언젠가는 늘려야 했던 인상 요인이 한번에 현실화 될 경우 더 큰 부담을 떠안아야 될 수도 있다. 지방공공요금 인상은 지자체 별로 재정여건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현명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전국 17개 광역 시·도 기획조정실장을 대상으로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인상 시기를 늦추는데 동참해달라”고 권고한 바 있다.

박상지 기자

본보, 정부광고 지표 평가 ‘광주·전남 1위’

열독률·사회적 책무 점수 95점 전국 410여 개 신문사 중 ‘5위’

전남일보(사진)가 전국 신문사를 대상으로 한 정부광고 지표 평가에서 광주·전남지역 1위를 차지했다.

9일 매체비평자인 미디어스가 입수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부광고주에 제공한 ‘2023 신문 광고지표 자료’에서 전남일보는 전국 410여 개 신문사 중 5위를 기록했다. 광주·전남에서는 1위다.

‘2023 신문 광고지표 자료’는 2022년 열독률 조사 결과(효과성, 60점)와 언론의 사회적 책무 조사 결과(신뢰성, 40점)를 합산해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한 점수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언론재단은 ‘광고지표’ 자료를 연간 1조원 규모의 정부광고 집행 시 ‘핵심지표’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평가에서는 총점 98점을 받은 강원일보와 국제신문이 공동 1위에 이름을 올렸다. 공동 3위는 매일경제와 중앙일보(각 96점), 공동 5위는 95점을 획득한 전남일보와 전북일보가 차지했다. 이어 △경남신문·경향신문·제민일보·한겨레(94점) △동아일보·경북일보·영남일보(93점) △조선일보·매일신문·농민신문·국민일보(92점) △한겨레21(91점) △무등일보·부산일보·경상일보·중부매일(90점) △경남매일·광남일보·충청투데이·경북매일신문(89점) △문화일보·광주일보·강원도민일보·한국일보·남도일보(88점)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에서 광주·전남지역 신문사 가운데 상위 10위권 내에 이름을 올린 곳은 전남일보가 유일하다.

전남일보는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지역 언론사 중 유일하게 18년 연속 지역신



문발전위원회의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에 선정되는 등 지역 대표 정론지의 입지를 굳게 다지고 있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 열독률 조사는 ‘지난 1주일 동안 읽은 종이신문의 이름(신문 제호)은 무엇이나’는 질문에 응답하는 설문조사로, 5개 구간으로 나뉘어 5점씩 차등 점수가 매겨진다. 1구간 60점, 2구간 55점, 3구간 50점, 4구간 45점, 5구간 40점이다.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는 열독률 조사에서 1구간을 상향해 점수를 적용받는다.

사회적 책무 지표는 △언론중재위원회 중재 결과(20점) △신문윤리위원회 서약참여여부(6점) △신문윤리위원회 심의 결과(4점) △광고자율심의기구 심의 결과(4점) △편집위원회 설치 운영(3점) △독자권익위원회 설치운영(3점) 등이다. 열독률 60점, 사회적 책무 40점 배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언론재단이 정부광고주에 배포한 ‘가이드’ 기준이다.

최권범 기자

광주사람들 (498/1000)

강래호
엔터케이 대표

▶관련기사 16면

No.1 Premium Balance Golf Ball

단 하나의 진짜

[Yes. & true balanced]

밸런스 라인

PERON 엑스페론